

교회소식

◆ 광고

- 오늘 2부 예배후 각 기관 월례회 모입니다.
- 오늘 오후예배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 매주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① 시간 : 금요일 오후 8시 ② 장소 : 사랑관
- 토요새벽기도회(1,2부)는 없습니다.
- 충청노회여전도회연합회 순회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① 시간 : 2015.2.12(목) 오전 11시 ② 장소 : 깊은샘교회(042-672-1588)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 신일문화교실 강좌에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① 강좌 : 바이올린, 플룻, 오카리나 ② 문의 : 윤현덕집사(010-7182-2978)
- 2월 9일 학사관 청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까지 모여 주십시오.
- 2월 28일 여전도회 착사대회가 있습니다. ① 시간 : 오전 10시 30분 ② 장소 : 사랑관

※ 교인등정

- 생일 축하합니다 : 이영일

※ 교회 기도제목

-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금요기도회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1남전도회	남5, 6목장	제3여전도회	금요일8시(사랑관)	수요일 오전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2월 행사

- 1일 : 신일비전현신예배, 정기제직회
- 8일 : 각 기관 월례회
- 15일 : 목장현신예배
- 22일 : 정기당회

◆ 2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곽복남, 정영주

◆ 2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소재감, 이진석, 주정주, 하문숙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소	전화	소속기관
	진동여	14목장		대전시 동구 용전동 25-17 204호	010-3620-5915	7여전도회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 11시 설교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25장(구25장)
새269장(구211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기 도 1부/김제곤 장로
2부/박권웅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예레미야 31:1~14 (구 P1100)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아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절망의 땅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기 도 설교자

찬 송 ... 새393장(구447장) ..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박근웅 장로
2부 / 우성한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영준 목사
설교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윤성욱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창세기 18:1~8(구 P21)

찬 양 호산나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고난 당한 자를 도우라

찬 송 ... 새539장(구483장) ... 다같이

광 고 인도자

축 도 인도자

✚ 다음주 기도 / 이육영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00 인도 정기훈 강도사
설교

목 도 다같이

찬 송 ... 새150장(구135장) ... 다같이

기 도 정인선 권사

성경말씀 인도자

레위기 1:1~9(구 P147)

말씀선포 설교자

향기로운 제사, 번제

목장찬양 남5, 6 목장

주기도문 다같이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남7, 8 목장

✚ 다음주 기도 / 정혜민 권사

Since. 1978

No 5. 2015. 2. 8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 교회를 섬기는 분 ◆

담임목사 안주모
부목사 최영준
강도사 정기훈
전도사 김금분
장로 김제곤 박권웅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웅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욱 우호선 김종남 강일창
찬양지휘 이육영 송명남 김신혜 윤현덕
반주 김빛나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조성일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안소연 윤혜진 정은지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 니 다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 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 벽 기 도 회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 가족 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 등 부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1.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호,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인,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타넷방송, 필리핀 추수선학교/오일환, 인도구즈라트/전미숙
- 2. 미지리교회 :**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벨렐교회/창원 군인교회
- 3. 학 원 선 교 :** 대전충청지회 S.F.C. 간사/ 이성은, 김지효
- 4. 기 관 선 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생드롭인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5. 문 서 선 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곽은대(윤순녀), 김경래(전선녀), 김나경, 김숙현, 김영필(심남희), 김재곤(한영실), 김종경, 김종남, 남동균(윤현덕), 남희종(김명자), 마주성(김선영), 박영숙A, 박영혜, 박유연 박은정, 소용섭(김다영), 소재악(김미희), 신정혜, 안재경(정은숙), 안주모(조양순), 엄기준(성영옥), 오인욱, 윤석운(박경숙), 윤선옥(엄순자), 윤호식(주정주), 이선환, 이성순, 이승호(성월웅), 이육영(김영자), 이재익(김애숙), 이진석(윤혜진), 정다운, 정승환(정옥자), 최계문

✦ 감사헌금

김예림, 곽은대(윤순녀), 김금분, 김명권(정영주), 김선옥, 김영민(함현숙), 김재홍(한영자), 김재곤(한영실), 김종남, 김진온(김남주), 남희종(김명자),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영혜, 박윤서, 박은정, 박혜진, 성형건(윤송하), 소용섭(김다영), 소재악(김미희), 신정혜, 심희숙, 안재경(정은숙), 안주모(조양순), 안진성, 안효준, 엄기준(성영옥), 오승엽(김영희), 오정석(정주희), 우성환(정혜민), 원용국(김복국), 윤성옥(김신혜), 윤호식(주정주), 이규홍(이진명), 이성순(윤상중, 지원), 이성은(정), 이승호(성월웅), 이영일(홍은미), 이인호(정지혜), 이재익(김애숙), 이태곤(엄경자), 정기훈(최연옥), 정영철, 정예원, 정옥근(이경미), 진예선, 최계문, 최영준(한은정), 황돈수(곽정자), 무영

✦ 선교헌금

김재곤(한영실), 김종남, 남희종(김명자), 박성용(이혜운), 박영혜, 박은정, 박혜진, 소용섭(김다영), 소재악(김미희), 신동영(강경숙), 안주모(조양순), 엄기준(성영옥), 우성환(정혜민), 윤호식(주정주), 이승호(성월웅), 이육영(김영자), 정옥근(이경미), 채재규

✦ 일천번제헌금

김해성, 김건국(김성옥/도희), 남동균(윤현덕), 남용민, 안스디자인, 안영원(영인/혜린), 안재경, 이영일(홍은미), 이재현(이라희), 이태곤(엄경자), 장은소(소연/진형/진성), 정옥근(이경미), 무영

✦ 목적헌금

김종남, 이규홍(이진명)

✦ 장학헌금

이규홍(이진명), 이승호(성월웅), 정옥근(이경미)

✦ 비전헌금

강일창(고숙자), 강현선(임희자), 김금분, 김영민(함현숙), 김영숙, 김영필(심남희), 김재곤(한영실), 김종남, 김진승(윤라미), 남동균(윤현덕), 남희종(김명자), 박근용(최문자), 박남수, 박상임, 박영숙A, 박영혜, 박은정, 소용섭(김다영), 소재악(김미희), 안정환(송영남), 안재경(정은숙), 안주모(조양순), 엄기준(성영옥), 오승엽(김영희), 우성환(정혜민), 우호선(김순자), 원용국(김복국), 윤성옥(김신혜), 윤호식(주정주), 이수영(권월성), 이윤성(박선옥), 이송호(성월웅), 이육영(김영자), 이은희, 임용현(정분희), 정길원(정채순), 정옥근(이경미), 정대수(김정희), 조성철(이혜린), 채재규, 최영준(한은정), 무영

목장현황

2015.1.25~1.31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교 회	12	42,000	320	교 회	043초원	5 김채옥	교 회	2	3,000	49	교 회
	2 강일창							6 고숙자	교 회	2	6,000	30	교 회
남2초원	3 김재곤	교 회	2	10,000	47	교 회	044초원	7 광복님	교 회	5	18,000	32	교 회
	4 김명권	교 회	3	15,000	43	교 회		8 성영옥	교 회	3	11,000	70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균	윤성옥	3	13,000	81	남동균	045초원	9 구남량	교 회	4	13,000	10	교 회
	6 안재경	윤성옥	3	15,000	40	남동균		10 정혜민	교 회	1	5,000	10	교 회
남4초원	7 오승엽	교 회	2	8,000	20	교 회	046초원	11 함현숙	윤성옥	1	5,000	30	남동균
	8 소재악	교 회	2	8,000	3	교 회		12 김복국	윤성옥	1	10,000	100	남동균
남5초원	9 이진석	교 회	1			교 회	047초원	13 정옥자	교 회	3	7,000	20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1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2	10,000	32	교 회
042초원(실바)	1 김명자	교 회	4	18,000	95	교 회	048초원	15 신윤경	교 회	1	5,000	25	교 회
	2 김명숙	교 회	4	12,000	90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2	10,000		교 회
042초원(실바)	3 권월성	교 회	3	9,000	90	교 회	049초원	17 김혜정	교 회	4	5,000	25	교 회
	4 정채순	교 회	4	12,000	120	교 회		18 엄검지	교 회	4	5,000	110	교 회

금주의 말씀

절망의 땅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예레미야 31:1~14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의 땅에서 믿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노래입니다. 절망 가운데 포기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물댄 동산 같은 기쁨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1.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어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절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버렸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입니다.

이스라엘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굶아 썩어가는 상처를 감싸고 덮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파도 썩은 상처를 도려내고 치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니를 향한 사랑이라고 믿어야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잠깐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 고난 속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을지라도 재산은 날아가고 가정에는 환란이 있고 육신에는 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니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은 이끌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3절에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이끄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잡아당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의 죄는 하나님이 싫다며 멀어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랑과 자욕과 저주와 어둠과 멸망 같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합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그러온 고국 유다로 영영 돌아 갈 수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이아 돌아가고는 싶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지만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보이지는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이성과 경험과 판단의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불신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비활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었습니다. 100대에 사라의 태가 탄생하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을 알았지만 믿음이 약숙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3.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어야합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처음에는 자기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일, 이년 이 아니라 칠십년이 가까이와도 포로의 고생은 끝이지 않고 그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백성들은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사람은 결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너무 쉽게 뒤로 물러납니다. 내 앞에 홍해가 나타나고, 여리고 같은 성벽이 버티고 있고, 골리앗과 같은 적군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떠난 소년부터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을 맞이 아니 하셨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도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착각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타락한 자기는 아들로 다시 회복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포기하였으므로, 아버지도 자기를 이미 포기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품꾼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 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 다.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울 한 해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잡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물댄 동산의 축복이 있습니다.